

'도시재생 주역은 지역주민'

이후동 마을 골목길 정비·설천 특화상품 브랜드 개발 등 예비사업 도내 8개 시·군 9곳 선정...도, 국비 9억원 확보

전북도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가 추진하는 2021년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8개 시·군 9곳이 선정돼 국비 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14개 시·군 총 33곳에 국비 35억 원 등 총 71억 원을 투입해 지역 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주민이 참여하는 예비사업을 토대로 본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이다.

'도시재생예비사업'(구. 소규모 재생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 전 마을도서관 조성, 마을축제 기획, 주민 소식지 발간 등 소규모 점 단위 사업을 10인 이상 지역주민이 제안해 직접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공모에 선정되는 시·군에 도비를 지원하기로 미리 결정하는 등 중앙부처의 평가에 대비해 시·군의 적극적인 공모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전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사전컨설팅과 지자체, 지역주민의 유기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향후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대상지 12곳을 사전에 발굴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9개 사업은 ▲마을 골목길 정비(인후동) ▲지역 특화상품 브랜드 개발(무주 설천면) ▲주민이 참여하는 집수리 사업단 교육, 운영(장수 장계면)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순창 북흥면) 등이며,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북도 노형수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게 돼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북도 도시재생사업이 지속 가능한 주민주도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다문화정책 개선·지원 확대 방안 모색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은 2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도내 '결혼이주여성의 현실과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세미나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전북신보 유용우 이사장 후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23일 전북신보보증재단 유용우 이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도의회 인사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국가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 장기재직 중 큰 과오가 없었다"면서 "성실한 근무한점, 전주지점장 시절 우수한 실적 등 실무경험과 업무능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반면,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내역이 거의 없어 성실한 직원으로서만이 아닌 기관장으로서 갖춰

야 할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특히,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과 금융센터건축에 따른 제3금융도시 미증물역할,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요구되는 정무능력 부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다.

유용우 이사장 후보자는 최종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부족한 면과 앞으로 해야 할 업무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다"며 "다양한 사회단체

와 소통하며 특히, 전통시장 상인회와 먼저 소통을 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기도 했다.

김철수 위원장은 "후보자가 재단 이사장으로 임명이 될 경우, 기관장으로서의 사회성과 소통이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헌신하는 이사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경과보고서는 도의장 보고를 거쳐 24일 전북도지사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내년부터 기존 교류사업, 대면-비대면 두 가지 방식으로

전북도-베트남 닥락성, 교류협력 강화 위한 화상회의

전북도가 베트남 우호지역인 닥락성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화상회의를 23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한민회 전북도 대외협력국장과 보반개민 닥락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해 3년간 양 지역의 우호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 교류계획에 대해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닥락성과 민간교류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북도 국제교류센터, (사)전북도-베트남 우호교류 증진협회가 함께 참석해 교류 내용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내용을 함께 공유했다.

닥락성은 전북도가 처음으로 맺은 베트남 우호지역으로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양 지역은 내년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맞춰 기존 교류사업은 대면과 비대면 두 가지 방식으로 병행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민회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은 "정부 정책이 발맞춰 전북도 또한, 베트남 지방정부와의 관계 강화에 주력해 전북도의 실리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전정신 실천·혁신 의정활동 '결실'

민주 김수홍 의원, 도전한국인운동본부 주관 '국회 의정대상' 수상 "낙후된 지역 변화 위해 어떠한 어려움 있어도 흔들림 없이 도전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갑)이 도전한국인운동본부(대표 조영관) 주관 '2020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비영리민간단체인 도전한국인운동본부는 23일 대한민국희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평가해 올해 국회 의정대상 수상자를 여·야 1명씩 선정, 여당 의원 가운데 김수홍 의원을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전한국인운동본부가 추구하는 도전정신을 실천하며, 입법과 정책 등 국가 지속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7개 법안이 통과돼 38.9%에 달하는 법안통과율을 기록했고, 한국판뉴딜에 지역균형뉴딜을 반영시키는 정책성과도 달성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0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또한, 김 의원은 예산분야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해 역대 최대인 8,042억원의 국비확보 성과에 기여하기도 했다.

심사위원인 주형근 교수(한성대)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 널리 이로운 의정활동을 펼친 김수홍 의원은 국회 의정대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김수홍 의원은 "낙후된 지역의 변화를 위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도전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새기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아동·청소년 사회 안전망 확보 차원 재구조화

이기동·이남숙 전주시의원 '일탈문제 따른 지역사회 보호체계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

전주시의회 이기동(중앙, 완산, 중화산·2동), 이남숙(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은 23일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아동·청소년



일탈문제에 따른 지역사회 보호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한국사회의 증대된 위기속에서 아동·청소년의 발달 환경상 곳곳의 위험요인 노출이라는 현실을 감안해 기획됐다. 특히 학교 및 지역 보호체계의 전반적인 방향전환의 시급성을 공론화하고, 향후 지역형 보호 정책의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일탈에 대한 지역사회 보호체계 변화'라는 주제로 한일장신대 사회복지학과 김용수 교수의 기조발제를 토대로 지역 내 청소년 보호기관 전문가 및 학교 학부모 등 각종의 토론회자들이 변화된 지역형 보호체계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고, 청소년 수련시설의 거점형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의 필요성 및 방향성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 차원의 재구조화 및 청소년 활동 지원 플랫폼 조성 및 공간 구축 방안이 전주시 차원에서 정책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기동 의원은 "지역 아동·청소년의 일탈문제가 지역적 문제로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보호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며 정책적 대응을 강조했다. 이남숙 의원은 "전주시 역시 정책적 의지와 예산확보 등을 통해 당장 필요한 평화동 지역 등 거점형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국주영은 도의원 장애인공단 감사패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전주 9)이 장애인 고용 및 인식개선 등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장애인공단으로부터 감사패를 지난 23일 수상했다.

국주 의원은 평소 장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고용과 인식 개선, 권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수상의 영광을 얻게 됐다.

특히, 전북도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증진과 장애인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관리 및 복지 향상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유호상 기자

한승진 전주시의원, 민주 지방의원 우수조례 1급 포상



전주시의회 한승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1급 포상을 수상했다.

지난 22일 국회 본청 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정책 우수조례로 선정돼 이날 더불어민주당 참총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홍영표)로부터 상을 받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참총은지방정부위원회는 자치분권과 코로나19 대응 등 지역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최우수상인 '1급 포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의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전주시 관광정책에 있어 관광객과 지역민의 상생 및 파생되는 이익 분배와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10월에 제정됐다.

한승진 의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 전주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면서 관광산업 및 활동영역 등을 새롭게 바라볼 필요성을 느껴 공정관광 활성화 정책의 체계를 다지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우수 조례로 선정되어 매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한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새 길 개척'... 익산시의회 내년도 사자성어 '극세척도'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가 내년 의정활동 목표 사자성어로 '극세척도(克世拓道)'를 선정했다.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공모를 통해 선정한 극세척도(克世拓道)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길을 개척한다'는 뜻으로, 지금의 현실이 당장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시민과 함께 땀땀 뚫쳐 위기를 참고 이겨내어 새로운 길, 희망의 길을 열어가겠다는 익산시의회 의지를 표현했다.

유재구 의장은 "2020년 코로나19로, 사회의 경제난으로, 그 어느 해보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암울했던 한

해였다.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자세로 2021년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미래를 향한 희망과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2021년에도 여러 난관 속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익산시의회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지혜를 모아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익산=정양원 기자